

GAP 내년부터 본격시행 올해 말까지 세부규정 마련

지난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왔던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지난 8월 4일 개정고시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기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쌀,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05년 현재 965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며, 농협·유통공사·인삼공사·생약협회 등 민간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두



◆ 제7회 한의학박람회에서 한국생약협회가 마련한 GAP 약용작물 홍보관이 관심있는 소비자들로 성황.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규정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및 수확 후 위생관리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것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의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 중에는 농약사용, 출하 전 단계에서의 농약검사 및 수확 후 위생관리시설의 기준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반영될 계획이다.

한국GAP연구회 발족

GAP제도 정착, 고품질 안전성 강화에 앞장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제도)의 빠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업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GAP연구회를 발족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에는 심상인 농림부 소비안전과장, 박창용 농관원 품질관리과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상록리조트에서 GAP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2015년, 국산 한약재

재배 · 채취 중단 우려

지난달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인삼 하나의 시장 점유율을 1%만 끌어올린다면, 연간 1600억원의 소득 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이와 같은 품목을 세계만 개발해서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2000억원의 소득증대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이유로 여야 합의하에 제정된 한의학육성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수 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GAP연구회는 농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 동향과 GAP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위해성 저감화 등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 우수농산물을 생산 공급기 위해 설립됐다.

GAP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경상대 정덕화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던 시대를 지나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GAP연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창립 심포지엄

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농림부 소비안전과 고경봉 사무관은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GAP제도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식수준이 낮고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 향후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GAP제도를 종합적인 농산물 안전관리제도로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김석철 박사 역시 "이미 선진국들은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와 유사한 제도를 정착하고 있는 단계"라며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어렵더라도 GAP제도를 준수해 국제적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 조선시대 한약재 원형 푼다

고려, 조선시대에 한약재의 원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착수된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약관련 교수 등 20여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고려·조선시대의 한약재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차이점 등을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명품 우수한약개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한약재의 원형을 규명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명품 한약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개발연구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간행보다 약 260여년 전에 활용되었던 고려시대 한약재와 동의보감

간행(1613년) 직후에 활용되었던 조선시대 한약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약 관련 교수 20여명이 참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한약을 발굴, 개발하게 된다.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에 활용됐던 한약재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해 우리 한약재의 원형도 규명하게 된다.

이 연구는 우리 한약재의 독창성이 시 작되고 확립되던 시기에 해당하는 한약 재임을 감안할 때 한약재의 시대적 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한약재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한약 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순록별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Sliced deer velvet)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8. 29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그간 전지녹용은 통관전 관능검사, 통관후 정밀검사(성상, 확인, 건조감량, 회분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별,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아 뉴질랜드로부터 자국산 녹용절편의 수입 요청이 지속되는 등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돼왔다.

최근 순록별 혼입여부 등

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하여 금번 동 규정을 개정,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기로 한 것.

한약재 "방기"와 "광방기"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약재로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코산'을 함유하고 있으나, 방기는 이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기"를 정밀검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중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은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어 "적작약"을 동 규정에서 삭제하고, 약전 제8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하였기 이를 반영하여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한약재 농약 범벅 '충격'

소시모, 시중유통 한약재 대상 검사결과

중국산 수입 한약재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의뢰,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홍화, 금은화에서 각각 사용이 금지된 퀸토젠(Quintozene)과 총BHC(유기염소계농약)가 검출됐고, 구기자에서는 사이퍼메스린(Cypermethrin)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용량은 퀸토젠이 잔류허용 기준치(0.1ppm)의 4배를 넘는 0.47ppm, 총BHC가 잔류허용 기준치(0.2ppm)의 두 배가 넘는 0.41ppm, 사이퍼메스린은 잔류허용 기준치(0.5ppm)보다는 적으나 0.27ppm이 검출됐다.

퀸토젠은 잔류성이 길어 국내에서는 1989년 사용이 금지됐으며, 어류에 미치는 어독성이 강하다. 일본잔류농약연구소가 실시한 퀸토젠 동물실험에 따르면 간암, 림프종, 폐종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총BHC는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토양의 잔류성이 길어 1979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인체 중독 증상은 두통, 구토, 경련, 간, 신장장애, 조혈장애, 성기능장애 등의 가능성이 있다.

사이퍼메스린은 사람과 가축에 대한 급성 독성은 낮지만 어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상수원 등의 지역에서 살포가 금지돼 있다.

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퀸토젠이나 총BHC 등을 한약재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려는 조치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한약재의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비롯해 안전성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